

도량발호와 후안무치



박 승 덕
냉정과 열정사이

전국 대학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도량발호' (跳梁跋扈)를 뽑았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는 의미다. 도량발호를 추천한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권력을 가진 자가 높은 곳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며 주변의 사람들을 함부로 짓밟고 자기 패거리를 이끌고 날뛰는 모습을 뜻하는 고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자들은 위임받은 권력을 사적인 이득과 편애하는 집단의 특혜를 위해 번번이 남용하고 악용한다"며 "그 최악의 사례가 12월 3일 심야에 대한민국을 느닷없이 강타한 비상계엄령"이라고 비판했다.

교수신문의 이번 설문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전인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이뤄졌다고 한다. 아마도 학계에선 작금의 사태를 예견했는지 모른다. "즉각 탄핵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진 이유다. 곳곳에서 행동하는 양심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갑작스런 계엄선포에 국민들이 국회로 모였다. 아무

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잘못된 권력을 휘두르면 저항에 부딪힌다.

2위에 오른 사자성어는 '후안무치' (厚顔無恥). '낮찍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으로 김승룡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가 추천했다. 김 교수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말을 교묘하게 꾸미면서도 끝내 수치를 모르는 세태를 비판한다"고 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내놓은 담화가 그렇다. 그는 계엄령 선포·해제 이후 5일 만인 12일 대(對)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 국가 신인도 추락, 주식시장 폭락, 내수경기 위축, 정국 혼란, 국민 충격에 대한 자기반성과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안긴 실망감과 허탈, 분노는 안중에 없었다. 공감능력, 현실인식이 없는 '유체이탈'로 다가왔다. 유체이탈이란 현재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한 채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제3자가 황당무계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다.

다행인 것은 아픈 역사가 우리를 지켰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박찬대 국회의원의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이 귀에 맴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약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저는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이다."

44년 전 고통과 아픔이 오늘의 내란을 잠재우고 국민과 나라를 구했다. 권력자의 도량발호가 몇 시간 만에 물거품이 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국민의 양식과 행동이었다. 여전히 유체이탈 상태의 후안무치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 결말은 새드엔딩이다. 그 책임은 가볍지 않다. 우리를 둘러싼 정치·경제·사회적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신인도를 되찾고,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이 안정을 찾아야 한다. 언제쯤 정치 걱정 없는 나라를 만날 수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의 참담함과 고통은 다시 국민의 몫이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끝나지 않은 국내 주식시장의 악몽



김지수
원 관 희 (자본시장부)

2024년은 국내 주식시장에 있어 악몽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경기 침체 우려, 정치적 리스크가 겹치며 증시는 깊은 늪 속에 빠져들고 있다. 8월 '블랙먼데이'는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11월 미국 대선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데다 12월 계엄 사태로 대통령 탄핵 정국까지 겹치고 있다. 이 모든 악재가 맞물리면서 코스피는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시장은 좀처럼 안정되지 못한 채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증시가 흔들리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미래는 없다"는 비판론이 개인투자자들에게 강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도 안 좋은 조짐은 자산을 해외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시장에서 발을 빼는 사례 역시 속출하고 있다. 상반기에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반기 들어서는 오히려 13조 원 규모의 국내 주식을 매도하며 주가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가오는 2025년에도 국내 주식 시장은 암울한 전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내 경제는 본격적인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국내외 기관에서 나오고 있다. 주요 경제 지표들 역시 긍정적인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미·중 갈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서 비롯된 글로벌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내

적으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투자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2025년은 국내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될 해다. 글로벌 및 국내 경제와 정치의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시장이 이를 어떻게 견뎌낼지는 앞으로의 주요 과제다. 2024년의 악몽을 발판삼아 보다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하루빨리 정치적인 안정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 판결과 대선으로 흘러가는 정치 일정과는 별개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정책과 기업들의 체질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은 요원한 일이다. 2024년의 혼란을 교훈 삼아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침체의 늪에 머무르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다. /wkh@

오늘의 운세 12월 20일 (금 11월 20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도 좋으니 전진. 48년생 구슬수가 있으니 새로운 만남을 주의. 60년생 금전 문제로 식구와 의견충돌. 72년생 생각과 믿음이 있다면 그대로 되는 것도 인생. 84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니 기쁨이 있다.
- 소** 37년생 흐지부지될 수 있으니 계획하는 습관을. 49년생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실행도 허상. 61년생 무더위가 갔어도 부채는 잘 보관. 73년생 우는 아이는 젖을 쥐더라도 일단 달래야 해결. 85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좋다.
- 호랑이** 38년생 남의 부러움을 사는 날이나 실속은 많지 않다. 50년생 약속에 들뜨다 사고 조심하라. 62년생 자기의 의견을 너무 내세우지 마라. 74년생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해낼 수 있다. 86년생 마른논에 물이 들어오듯이 일이 잘 해결.
- 토끼** 39년생 우물을 찾았으나 두레박이 없으니 답답한 심정. 51년생 굳은 신념으로 상대를 잘 설득한다. 63년생 마음이 불안하면 명상을 추천. 75년생 행복을 마냥 꿈꾸는 것도 일종의 허상이 될 수. 87년생 배우자의 잘못은 내가 덮어야 한다.
- 용** 40년생 호의가 계속되면 상대는 당연한 권리로 착각. 52년생 마음 가는 대로 하루를 유유하. 64년생 수많은 마찰 후에 아름다운 보석은 탄생. 76년생 오늘 일을 하다 보면 내일 발전이 온다. 88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 뱀** 41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하게 되니 주의. 53년생 창업은 파괴로 이어지니 기술을 배우도록. 65년생 좋은 일은 많은 사람에게 자랑. 77년생 권리를 가지려면 의무이행도 해야. 89년생 늦지 않았으니 자신 있게 시작.
- 말** 42년생 성공한 사람 뒤를 따르면 실수가 적다. 54년생 도기에 발등 찍히지 않도록. 66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은 법. 78년생 한정적인 시간이니 유희보다는 미래 계획을 잘 잡도록. 90년생 머리가 맑고 상쾌한 하루.
- 양** 43년생 숫자 7과 노란색이 행운을 준다. 55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서류를 잘 살펴야 한다. 67년생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것이 현명. 79년생 허참은 걱정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세우자. 91년생 우물에서 송충 찾지 말고 순서대로.
- 원숭이** 44년생 적당한 경쟁은 발전의 요소이다. 56년생 무리하지 말고 형편과 능력에 맞춰 것. 68년생 씨를 뿌리고 수확을 기대. 80년생 가슴 아픈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으니 실망은 하지말자. 92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 닭** 45년생 두 갈래 길에서 망설이게 된다. 57년생 길이 끊긴 곳에서 새로운 여행이 시작된다. 69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다. 81년생 힘든 일이 오후가 되면 풀리기 시작. 93년생 현명한 사람은 세월 앞에서 늘 공부하는 사람이다.
- 개** 46년생 상식으로 지내니 운세가 원만. 58년생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데. 70년생 사랑인지 망상인지 잘 판단. 82년생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우선은 자금계획을 세워야 끝까지 잘 키우게 된다. 94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 돼지** 47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59년생 하나씩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다. 71년생 새로운 친구를 사귀다. 83년생 항상 보던 사람도 오늘은 달라 보이나니 노 노력을. 95년생 결과가 좋아야 과정도 좋은 평가를 받는 법이다.

김상회의四季

기업은 왜 상장하려 할까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회사는 수십만 개에 달한다. 그런데 주식시장에 등록된 기업은 수천 개에 그친다. 그만큼 주식시장에 등록하는 게 어렵다. 기업을 주식시장에 등록하는 걸 상장이라고 한다. 어떤 기업은 상장을 회사의 목표로 삼기도 한다. 도대체 상장이 어떤 것이기에 기업들이 전력을 다하고, 왜 상장을 하려는 것일까. 상장은 코스피나 코스닥시장에 명패를 내건다는 뜻이다. 증시에서 그 회사 주식을 투자자들이 사고팔 수 있다는 의미이다. 상장회사가 되면 기업으로서 유리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 사회적 평가가 좋아진다. 시장에서도 투자자들도 믿음만한 회사라는 이미지가 생긴다.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한결 수월해진다. 자금이 필요할 때 상장하지 않은 기업은 금융회사에서 어렵게 대출을 받아야 한다. 상장을 하면 자금조달 방식이 달라진다. 주식을 더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다. 홍보 효과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상장회사가 된다는 건 그만큼 자력을 갖추었고 엄격한 심사를 통과했다는 걸 보여준다. 상장 심사는 간간하다. 적정한 자기자본이 있어야 하고, 매출액도 정해진 기준치 이상의 실적을 올려야 한다. 기업의 자본력과 매출액, 기술 등에 관한 종합 검사를 거치는 것과 같다. 어려운 검증을 통과했으니 신뢰가 높아지고 특별한 활동 없이도 기업이 홍보된다. 상장하면 창업자나 초창기에 자본을 투자한 사람은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상장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을 상장 이후에 증시에서 매도해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더구나 기업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랐다면 수익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가 된다. 회사를 상장시킨 경영자가 수백억, 수천억 부자가 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는 이유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57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8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경과학**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파벳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결합형스도쿠110**

할인도서

2	1	2	9	7	8	6	9	8
7	8	6	9	2	1	9	2	8
8	2	9	8	1	6	7	2	9
2	9	1	7	8	2	8	9	6
9	2	8	6	2	9	8	7	1
9	8	7	1	9	8	2	6	2
6	7	2	8	9	9	1	2	8
1	6	8	2	9	7	2	8	9
8	9	9	2	6	2	1	8	7

4	3					5	6	8
6	8				7		9	1
7					3			
	9	7		6				
			5	9				
				3		1	5	
			9					3
3	7		1				8	4
8	5	9					1	2

7		4		8	9	3		2
						1	7	
9	7							5
6	4		1		5			
8								1
				9		8		6
								7
5								2
		6	8					4
3		5	4	9		1		6